

現代日本教育의 哲學的 理解

韓 基 彦
(教育學科)

I. 序 言

戰後日本の 教育이 어떠냐고 문의받는 경우가 많다. 本稿에 있어서는 「現代日本教育의 哲學的 理解」라 하여 이하 순서 따라 論述키로 하겠다.

첫째, 戰後日本の 復興・繁榮과 ‘教育의 힘’에 관해서이다.

1980년대의 현재에 이르러서는 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본인 자신들도 솔직히 일본의 변영에 관해서 謳歌하고 있다. 사실, 과거 36년간에 걸친 일본사회의 변모는 급격하며 그 발전은 눈부신 것이 있다. 종전 당시에 있어서의 廢虛化한 東京이나 廣島の 情景를 상기할 때, 1960년대초의 東京 올림픽 개최에 따른 東京의 충실화, 1970년의 大阪의 만국박람회, 1981년에 있어서의 神戸의 포토피아가개최는 10년을 단위로 한 일본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변영상을 보여주는 象徴이라고도 하리라.

일본부흥의 秘密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한국동란에 의한 特需景氣로 인한 경제부흥의 덕택임이 말하여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異議를 말할 여지가 없을 줄로 안다.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최대의 관심사가 경제부흥에 있었으며 국민의 정력이 이 한 점에 집중되었던 결과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 근저에는 ‘人的頭腦의 健在’가 커다란 支柱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일본이 과거 백년 가까이 애써가면서 구축해 온 근대 교육의 성과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말할나위도 없이 군국주의적 교육을 시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전후에 있어서의 일본의 부흥이 戰中世代의 힘에 의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但, 그들이 과거에 받은 교육이란 군대식교육이었고 군국주의의 교육이었다는 것으로 해서, 따라서 ‘경제부흥 즉 군대식교육’이라는 等式이 성립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상당히 再考할 면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성과, 즉 人間形成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결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요인인 경우에도 個體따라 작용하는 교육적 효과 내지 의미는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筆者가 전후 일본부흥의 秘密을 ‘교육의 힘(成果)’에 의하는 것이라고 斷定하는 또 하나의 證左로서는 ‘해외생활 체험자의 귀국에 따른 日本文化의 複合化’라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教育學的 省察에 관해서는 나 자신 하나의 假說에 지나지 않으나, 적어도 한국을 비롯해서 在外地에서의 생활체험자 및 전쟁체험자(포로 생활자를 포함해서)(會田雄次)가 다수 일본에 귀국한 사실은 日本文化에 在來의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을, 즉 새로운 문화적 자극, 문물인 외국문화를 첨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범위를 韓國文化에 한정해 보더라도, 김치라든가 불고기 및 마늘의 普及・再評價現象에 접합에 있어 그 느낌이 더욱 강렬한 것이 있다. 그만큼 일본의 (음식)文化는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었다고 하리라. 또한 그것은 비단 식생활문화에 한정될 성질의 것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제반사로서 일본은 전쟁에는 졌으나(그 결과,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인생에 있어서의 敎訓도 컸으리라고 보거나), 한편, 海外에서의 經驗을 가지고 돌아와 일본국내에서 생활하는 중에 文化的 再生産過程을 거쳐서, 그것이 일본의 부흥을 촉진시킨 原動力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리라. 전후일본의 급격한 부흥과 번영은 그 根本要因으로서 진정 ‘배우는 자에 福이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며 ‘文化的 三角波濤現象’(拙著, 1968. 10)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리라. 日本文化의 특질을 ‘雜種性’이라고 보는 것도 까닭이 있다고 하리라. 勝義에 있어서의 ‘雜種文化’(海老坂武, 81~171)인 것이다.

둘째, 叙述上에 있어서의 ‘準據’에 관해서이다.

筆者는 本論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음을 생각해 보았다.

- (1) 日本의 教育的 傳統이란 무엇일까?
- (2) 現代日本社會에 있어서의 教育問題는 무엇일까?
- (3) 이러한 教育的 諸問題에 대한 教育哲學의 對應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물음을 ‘教育의 理念’이라든가 ‘教育의 人間像’ 및 ‘教育의 過程’이라는 세 가지 教育領域에 걸쳐서 考察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上記한 세 가지 물음은 研究方法의 세 가지 次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기 ‘역사적’・‘현상적’・‘철학적’ 접근법인 것이며, ‘전통・주체・개혁’ 또는 ‘教育的 傳統・教育問題・教育哲學의 對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리라. 따라서 이는 교육의 이념・교육적 인간상・교육의 과정이라는 ‘3領域’과 전통・주체・개혁이라는 ‘3次元’ 또는 역사적・현상적・철학적이란 ‘3方法’과의 관계에서 考察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傳統과 改革을 통한 人間形成의 論理’인 基礎主義의 觀點을 準據삼아 論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Ⅱ. 教育의 理念

1. 日本人形成의 核思想

일본인 형성의 핵사상을 나타내는 말로서는, ‘와비’(水尾比呂志, 16), ‘사비’(鈴木大拙, 16~17), ‘시부미’, ‘모노노아와레’ 및 ‘이끼’ 등등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이것들은 自然

即 人間이라는 日本思想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價值概念이라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와비’나 ‘사비’가 禪思想에 의한 영향이 농후한 것에 비해서, 그것들을 딛고 한 층 눈에 띄게 일본인의 생활철학으로서 結晶體를 이룬 것이 ‘이끼’일 것으로 筆者는 보고 있거니와(拙著, 1977, 118~127), 九鬼周造는 ‘이끼’(粹)가 일본인의 생활철학을 나타내는 말임을 다음과 말하였다.

살아 있는 哲學은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끼’라고 하는 現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어떠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가? ‘이끼’란 필경 우리 민족에게 독자적인 ‘사는’ 방식의 하나는 아니겠는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또한 味得되어야 할 體驗을 論理的으로 言表하는 일이, 이 책이 추구하는 課題이다. (九鬼周造, 序)

라고 말하므로써, ‘이끼’와 사는 방식(이끼자다)을 日本文化의 독자적인 현상으로서 파악, 이를 論理的으로 究明하였다.

2. ‘教育의 理念’ 論議

終戰과 함께 일본교육의 이념은 明治維新이래로 주장되고, 특히 滿洲事變・上海事變・中日戰爭・太平洋戰爭으로 진전하는 가운데 「教育勅語」에 의거하는 忠君愛國의 교육이념(長浜功, 1979)으로부터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민주적 교육이념으로 옮겨갔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終戰後에 있어서의 일본교육의 기본방향 제시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美國教育使節團報告書》(全譯解説: 村井實)라고 하겠다.

同報告書는, 일본의 教育의 目的 및 內容에 관하여, “日本에 있어서의 커리큘럼, 教科課程, 教授法 및 教科書의 再編은, 戰前의 일본의 교육제도에 비추어 보고, 또한, 이제야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정치형태를 채택할 기회가 일본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民主教育에 대한 基本條項을 勸告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일본의 교육이념은 軍國主義로부터 民主主義에로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었으니와, 1947년 「教育基本法」의 제정・ 공포에 의하여 勅語主義로부터 法律主義에로, 忠良한 臣民으로서의 ‘코노미찌’(이 길)의 실현으로부터 교육의 自律性의 原則이 취하여지게 되었다. (世界教育史研究會編, 133~135)

《教育基本法》의 제 1 조에는 ‘教育의 目的’에 관해서,

교육은 人格의 完成을 목표로 삼고,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眞理와 正義를 사랑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근로와 책임을 중히 여기며 자주적 정신이 충만한 心身이 모두 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教育의 目的은 온갖 기회에 어떠한 장소에서도 실현되어야 한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학문의 自由를 존중하며 실제생활에 즉하여 자발적 정신을 키우고 自他の 敬愛와 協力에 의해서 文化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教育의 方針이 제 2 조에 제시되어 있다.

이렇듯, 教育의 목적은 ‘人格의 完成’에 있거니와, 이 한 마디에 한정해 보더라도, 그것의 審議・制定過程에 있어서 文部省(‘人格의 完成’이라고 成文함)과 教育刷新委員會(‘人間性の開發’을 내세웠음)와의 견해차는 保守派(芦田均, 天野貞祐)와 進歩派(務臺理作, 南原茂, 森戸辰男)에 의한 입장의 상위이기도 하였다. 또한 ‘教育의 理念’論議는 그후도 文部省과 日教組의 대립 항쟁의 一環으로서 파악된다(八木淳, 1978). 한편 최근에 있어서의 改憲論議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본다.

3. ‘아마에’와 ‘요사’의 構造

‘교육의 이념’과 관련해서, 九鬼周造의 《‘이끼’의 構造》가 일본인 형성의 전통적 핵사상을 해명한 古典이라고 한다면,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인 형성의 핵사상으로서 明示된 베스트 셀러는 무엇이겠는가?

土居健郎의 《‘아마에’의 構造》가 그것이라고 하리라. 최근에 ‘刊行 10周年記念愛藏版’이 별도로 간행되어, 케이스의 띄에는 “탄생하여 10년——本書는 이미 백만 독자를 획득하고 있는 超 頂 셀러, 現代의 名著입니다……”라고 써 있듯이 현재까지 124刷本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아마에’(응석)의 着想, ‘아마에’의 世界, ‘아마에’의 論理, ‘아마에’의 病理 및 ‘아마에’와 現代社會라는 다섯 章에 걸쳐 논술하고 있거니와, ‘아마에’의 概念에 대한 誤解 내지 異議도 적지아니 提起된 것 같다.

그러기에 土居는 ‘아마에’ 再考(215~231)라는 別記에서 ‘아마에’의 語義에 대한 解明을 시도하고 있다. “‘아마에’라는 말이 일본어에 特有하며, 일본인이 특히 ‘아마에’의 감정에 친숙한 것 같이 보이는 사실이 있다는 점”(220) 이야말로 歐美人과의 관계에서 특기할만하다고 하였다. “즉 ‘아마에’라는 말이 존재치 않는 사회에도 ‘아마에’의 감정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本書는 바로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저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24)고 잘라 말하였다.

우리 韓國語의 경우에는, 이 ‘아마에’와 同義語라고 할 수 있는 ‘응석’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 형성의 핵사상으로서 ‘응석’ 보다는 ‘뒹’쪽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아마에’와 同義語인 ‘응석’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과 土居健郎에 의한 理論體系化의 功績과는 분명히 次元을 달리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土居는 《아마에雜稿》 이외에도 共著 등을 통해서 ‘아마에’의 本質解明과 理論的 發展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教育철학자에 의한 학문적 성과로서는, 村井實에 의한 《‘요사’(善)의 構造》를 들 수 있다. 그는 「序文」에서 本書刊行의 목적이, “이러한 論文들은, 그 모두가, 인간과 사회

에 대한 나의 ‘季節을 벗어난’ 念願, 즉 우리들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 및 우리들의 사회가 그런 의미에서의 ‘요사’(善)를 原理로 삼는 사회로서 바로 서 주었으면 하는 念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나는, 이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말하자면 基礎耕作이라는 생각에서, ‘요사’(善)에 관하여 이와같은 논문들을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現代社會는 “아무리 보아도 地上은 바야흐로 ‘폐락’과 ‘욕망’과 ‘권력’의 계절이다”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나로서는 지금, 내가 염원하는 바 ‘요사’(善)의 季節이라고도 할 것이, 이런 식으로해서 점차 되돌아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이만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理想社會到來의 희망을 ‘요사’에 걸고 있다.

本書의 構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사’(善)나 ‘고코로요사’(快)나, ‘요사’란 무엇인가, 교육에 있어서의 ‘요사’, 思考法의 문제, ‘요사’의 構造, ‘요사’와 관련된 東洋과 西洋으로 되어 있다.

村井은, 인간은 “요사(善)를 문제로 삼는 동물”(21~23)이라고 규정하고, ‘스끼’(好)라는 것은 主觀의 문제이지만, ‘요사’(善)라고 할 때에는, 인간은 분명히 客觀的인 무엇인가를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사(善)에의 물음에 관한 대표적인 事例로서, 이테아로서의 ‘요사’를 비롯하여, ‘행복’으로서의 ‘요사’, ‘神’으로서의 ‘요사’, ‘快’로서의 ‘요사’라는 네 가지를 들어 思想史的 解明을 하고 있다.

이어서 ‘교육에 있어서의 요사’에 관한 금후의 과제로서 “그러나, 적어도 현실적으로 사람을 ‘잘 되게’(善) 하려고 하는 사업인 ‘教育’에 관심을 어디까지나 가지려는 사람으로서는, ‘요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방식이고간에 적극적인 規定을 탐구하는 일 없이는, 일 자체가 정당하게 성립되는 根據를 찾지 못하는 것이 된다”(村井實, 87)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思考法의 문제’에 관하여 논술하는 동시에 ‘요사’의 構造를 ‘三角錐 모양의 立體的인 構造모델’로써 표시하고 있다(上掲書, 136). 또한 그는 이 構造모델에 의거해서 ‘요이’(善, 좋다)라는 判斷의 성립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相互性’ ‘無矛盾性’ ‘效用性’ 및 ‘美’에의 要求들에 대한 말하자면 무게를 두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며, 둘째로, 이 ‘요사’의 判斷이라는 것은, ‘相互性’ ‘無矛盾性’ ‘效用性’ ‘美’ 등의 무게를 두는 방식에 있어서는 본래 자유이면서도, 그것들에 관한 考量의 정도에 따라서, 優劣의 差異가 생긴다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셋째로, 무게를 둔다는 일은 인간의 보통 자연적인 발달에 있어서는 ‘相互性’을 優先시키는 경향을 지니는 것이며, 네째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情報을 만든다거나 처리한다거나 하는 知性的 能力이 특히 뛰어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知性에 있어서 유난히 자기자신의 내부에서의 ‘相互性’에의 우선적인 무게를 두는 傾向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思考習慣(자기 자신에 관한 認知形式)을 채용할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적된 ‘요사’에 대한 構造的 作用조차 부정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요사’(善)와 諸價値에 관하여 논술하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人間이 기본적으로 ‘요사’를 추구하고, 그때문에 온갖 사함에 관하여 ‘요이’(善,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行爲로 옮겨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行爲의 多樣性에 따라서, 자연히 학문·예술·도덕·제도 등, 일반적으로 文化라고 불리우는 多様な 領域이 전개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 경우에, 그와같은 多様な 領域에 관해서 생각될 수 있는 諸價値, 즉 ‘眞’ ‘正’ ‘善’ ‘美’ 등도, 본래는 결코 별개의 것일 수는 없다. 도리어, 본래는 하나인 ‘요사’의 별개적 표현방식, 혹은 나타나는 방식에 따른 別名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上揭書, 144).

라고 하는 것이 ‘요사’(善)에 대한 그의 構造的 把握인 것이며 分析哲學的 解明이라고 하리라.

Ⅲ. 教育的 人間像

1. 日本人的 理想像

日本人的 理想像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사무라이’(武士)를 想起할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言表하는 경우에 ‘古武士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니와,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선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여 理想的 人間像을 칭송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리라.

그리고 이와같은 일본인의 이상상에 관한 思想的 體系가 ‘武士道’라고 하겠다. 武士道の 古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葉隱》이 유명하다. 그리고 현대적 고전이라고 할 것으로는 新渡戶稻造의 《武士道》(1899)가 있다.

그런데, 일본인의 교육적 인간상을 理解함에 있어 ‘武士道’ 못지 않게 중요한 意義를 지니는 것은 서민층의 생활철학으로부터 성립하여, 마침내는 武士階級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일본철학인 ‘心學’이라고 하리라. (石川謙, 1964)

이렇듯 전통적인 일본인의 이상상은 武士道와 心學으로부터 찾게 되거니와, 이사야 벤다산의 《日本の 商人》에서는 ‘商人’이야말로 室町時代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일본인의 實體요, “일본은, 軍事로서가 아니라 실은 ‘商事’에 관하는 한, 明治 이래로 不敗였었다고 해도 편찮다”(벤다산, 184)고 잘라 말하고 있다.

2. ‘教育的 人間像’ 論議

전후 일본에 있어서 교육적 인간상이 論議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은 「期待되는 人間像」과 관련해서라고 하겠다.

1945년, 일본이 敗戰하기에 이르기까지 日本人形成의 교육 사상적 기초는 《교육에 관한 勅語》에 제시된 忠孝思想이었다. 敗戰後, 사상적 혼란과 함께 ‘新日本人間像’의 문제(堀尾輝久, 170~172)가 의식되기 시작하였고, 그후 1966년에는 문교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中央教育審議會가 《期待되는 人間像》을 成案하여 公表함에 이르렀다.

《期待되는 人間像》(答申)의 趣旨 및 大要에 관해서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期待되는 人間像」은, ‘제 1부: 당면하는 일본인의 과제’ 및 ‘제 2부: 일본인에게 특히 기대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대되는 인간상」은, ‘第一 後期中等教育의 理念’의 ‘二 人間形成의 目標로서의 期待되는 人間像’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후기 중등 교육의 이념을 밝히기 위하여, 어떠한 理想像을 그릴 수 있는가를 檢討한 것이다. (上掲書, 218)

라고 하면서 “이하 진술하는 것은, 모든 日本人, 특히 교육자 및 기타 인간형성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參考삼을 성질의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注意할 사항으로는, (1) 여기에 제시한 것은 人間性 가운데의 諸德性의 分布地圖인 것으로서, 그 제덕성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청소년 교육의 目標로 삼는가, 또는 그 表現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일들은 각기 교육자 혹은 교육기관의 주체적인 결정에 一任되어 있다는 것. (2) 良心이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德의 根源은 하나라고 하듯이, 德性의 수호는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명칭의 기억이 아니라, 그 중 하나나 둘이라도 좋으니 자기 몸에 더득토록 힘쓰게 할 것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期待되는 人間像》의 발표와 함께 제기된 諸批判에 관해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룰데면 堀尾輝久의 「勅語・基本法・期待되는 人間像」(《教育》205號 6~26)은 體系的인 論文으로서 주목할만 하다. 또한 堀尾는 ‘교육적 인간상’ 關係文獻으로서, 勝田守一の 「教育에 있어서의 人間像의 條件에 관하여」(《思想》, 1951년 4월호), 上原專祿, 宗像誠也(對談), 「人間像을 생각하는 意味」(《日本人의 創造》, 東洋書館, 1952, pp. 15~40), 日高六郎, 「새로운 人間像——그 현실적 지반」(《日高六郎教育論集》, 一ツ橋書房, 1970, 11~40), 中央教育審議會, 「期待되는 人間像」(答申)(《文教時報》1072號, 1966), 森戶辰男, 「答申과 教育改革」(《文部時報》1072호 1966), 教育制度檢討委員會, 「教育의 理念」(「일본의 교육개혁을 추구하여」《教育評論》, 1974년 5, 6월 합병호, 51~55)이라는 여섯 편을 選定하고 있다.

3. 日本人論의 檢證

일본에서는 1970년을 전후해서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에 의한 日本人研究의 붐이 일고 있다. (佐橋滋編, 南博 등) 但, 여기서는 그와 같은 諸研究에 의거하면서도 筆者 자신에 의한 日本人性格의 分析에 관해서만 論述기로 한다. 準據로는 基礎主義의 教育的 價值體系를

채택하였다.

우선 長點으로 말하면, 敬神性을 비롯하여 潔死性・勤勉性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좀더 세분해 보면, 受容性이라든가 適應性・義理性・人情性・活動性・報恩性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敬神性’이란 ‘神들의 뒤흔슈아워’라는 표현도 있듯이(맥파랜드, 1967), 과거 백년 간을 한정해 보아도, 이른바 신흥종교의 발흥 발전이 현저하다. 創價學會라든가 天理教・金光教 등인데, 한동안 위세를 떨쳤던 神道の 경우를 상기해 보더라도 日本人 性格의 하나로써 敬神性을 들 수 있으리라. 뿐만아니라 옛부터 佛敎에 대한 신앙심이 두텁고, 지금도 관습상, 결혼식은 神社나 神宮에서 하고 喪儀는 佛式으로 한다는 것이 일본인에 공통된 현상이다.

둘째는 ‘潔死性’이다. 이것은 물론 흔히 쓰고 있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미련없이, 이른바 ‘앗사리’하게 죽음에 임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자 자신이 만들어 본 용어이다. 죽어야만 되는 경우에 주저함이 없이 깨끗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死生觀을 가리켜 이와같이 표현해 본 것이다. 바람이 불면 일시에 꽃이 저버리는 벚꽃을 國花로 삼아, 옛부터 그것을 그들이 사랑해 왔다는 것도 말하자면 이와같은 潔死性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들의 성격은 彈力性을 지니고 있다. ‘이꾸지’(意氣地)라고 하여 강인한 意志力을 중히 여기는 것도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지극히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세째는 勤勉性이다. 일본이 오늘날과 같이 富強한 나라가 된 原因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인의 勤勉性이라고 하리라. 기계 기술 문명에 뒤진 일본인이 과거 백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 第三의 大國(로벨·기란, 1969)이라고 칭송될 정도로 융성한 先進工業國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를 좀더 세분해 보면 다음의 여섯 가지 特性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受容性: 외래문화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 신경과민이라 할 정도로 敏感하다. 모방 일변도라는 비난도 받고 있으나, 오늘날 日本文化의 건설은 이와같은 그들의 역사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外來文化의 受容性(増田義郎, 1967)의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2) 適應性: 그들은 현실적 사태의 변화에 대해서 지극히 민감하다. 따라서 狀況이 바뀔것 같으면 일본인은 ‘게로리’(上掲書 6~7)라는 말 그대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새로운 事態에 적응해 버린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본인이 그다지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義理나 人情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고 싶을 정도로, 瞬間에 一大方向轉換을 감행한다는 점이다. 일본인에 있어 이 ‘適應性’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現存과 오늘날의 번영을 초래케 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와같은 성격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生存과 현실적 번영에 대해서 說明하는데는 불가결한 요점

이라고 하리라.

(3) 義理性: 흔히 말할여지고 있듯이, 일본인은 義理와 人情으로써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그들에 있어서의 인간관계의 골수를 이루는 것으로서(南博, 1953, 186~211)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菊花와 劍》에서도 이 점이 상세하게 論及되어 있다(베네딕트, 169~182). 報恩이니 恩惠, 그리고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든가, 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중히 여겼다. 義理와 人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도처에 나타나 있거니와, 이를테면 ‘로쵸꾸’(浪曲)라든가 仁俠譚 등 연예물에 있어서도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義理와 人情이거니와,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와같은 성격을 형성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인이 ‘의리’를 대단히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非打算의이며 非合理性의 것이지만 그들은 義理를 지키는데는 목숨을 걸고 한다. 말을 달리하면 ‘獻身性’이라고 하리라. 이 점〔義理性이라든가 獻身性〕은 武士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강열하게 요구되고 지켜져 왔다.

(4) 人情性: 長幼의 有序觀과 함께, 적어도 남 위에 서는 자는 손 아래 사람에 대하여 한없이 따뜻한 人情을 배울 것으로 되어 있다. 人情은 義理와 한 쌍이 되어 있어, 옛부터 ‘의리와 인정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벗어나는 行爲를 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도 人情과 義理를 지녀야 된다고 여겨졌다. 이와같은 것이 오늘날 그들 일본인의 성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歷史性과의 觀點에서 그 까닭을 엿볼 수 있으리라.

(5) 活動性: 그들은 몸이 가볍다고 여겨질 정도로 活動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활동성이라는 그들의 성격이 빠른 템포의 걸음걸이로 나타나고 있다.

(6) 報恩性: 그들은 남에게 恩惠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性格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선물(오후리모노, 贈物)이라는 풍습이 활발하거니와, 거기에는 반드시 答禮가 있기 마련이다. 謝恩會라고 하여, 학교를 졸업할 때, 으레껏 자기들을 가르쳐주신 恩師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宴會가 있는 것도 이러한 그들의 報恩性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 든 日本人 性格의 장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썩썩한 마음씨’라고 하겠으며 ‘生動性’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핵심을 이루는 사상은 역시 ‘이끼’라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성격을 ‘훈훈한 마음씨’, ‘人情性’(땃)이라고 要約해 본 것과 對照해 보면 더욱 알기 쉬울 것이다.

이번에는 ‘타락한 경우’인 성격적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狹量性・事大性・全體性이 그것이지니와, 좀 더 세분해 보면, 閉鎖性이라든가 排他性・打算性・服從性・流行性・沒我性 등을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로 ‘狹量性’이란, 이른바 ‘島國根性’이다. 時間의 理念에서 보면, 그들의 歷史의 眼目は 결코 긴 것이 못된다. 우리 開化黨 人士인 金玉均一行이 일본에 亡命했을 때, 그들이 취한 태도나, 孫文을 비롯한 중국 망명 정치가에 대해서 취한 그들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狹量한 것으로서, 만약에 일본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支援을 했더라도, 일본인은 길이 높이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처럼 日本을 밟고 亡命해 온 人士들에 대하여 냉담하였고, 오직 일본의 외교적 입장만을 생각하여 信義있게 그들을 대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는 ‘事大性’이다. 흔히 한국인의 성격의 좋지 않은 점을 ‘事大主義’나 ‘事大性’이라고 하지만 일본인들의 ‘事大性’이라는 성격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통은 이 점을 그들의 성격으로 들지 않는 것 같으나, 筆者는 俗談 등을 통해서도 立證할 수 있으므로, 일본인 성격의 중요한 점의 하나로 ‘事大性’을 꼽아 보았다. 긴 자에게는 휘감겨라든지, 外國의 既成思想에 약하다든지 하는 것, 그들의 思考方式은 均衡의 喪失과 아울러 한편 지극히 ‘打算的인 心性’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취하는 政經分離政策 운운해서 兩面(全方位)外交를 펴고 있는 外交政策도 실은 ‘事大性’이라는 하나의 그들의 性格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으리라.

세째는 ‘全體性’이다. 自我의 薄弱이 ‘전체성’을 띠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그들의 약점이라고 하겠다. 개개인으로서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일본인이지만, 뭉치면 무섭다는 말도 있어 ‘全體性’을 注視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항상 전체가 움직이는 데로 따르겠다는 自我의 薄弱性 가운데는 결국 文化的으로도 ‘獨創性의 缺如’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니 이러한 ‘전체성’이라는 성격의 측면은 크게 반성되고 是正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극단적인 ‘利己主義’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自我의 薄弱(南博, 1~40)은 개개인으로서로는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나, 도리어 약한 개인이 모임으로써 全體로써 뭉치는 경향을 띤다. 自我의 박약이 流行에 약하고 열광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격적으로는 爆發性이나 勇猛性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 좀더 세분해 보면 다음의 여섯가지 特性을 들 수 있겠다.

(1) 閉鎖性: 日本 歷史를 보면, 外來文化에 대하여 과민할 정도의 ‘受容性’을 보인 점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閉鎖性’을 보인 점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이 취한 鎖國政策의 역사를,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閉鎖性’이라는 성격의 일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

(2) 排他性: 일본인은 外國文化는 받아들여도, 外來人에 대해서는 排他的이라는 것이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성격적 특징의 하나다. 오늘날에 와서 ‘國際性’을 지닌 日本人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침도 이러한 그들 성격의 약점을 是正해 보려는 노력의 일단이라고 하

겠다.

(3) 打算性: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인의 성격 가운데는 打算을 초월해서 취하는 ‘義理’라는 성격도 있으나, 또 反面, 지극히 打算의인 면이 있다. ‘긴 자에게는 휘감겨라’(南博, 1~2)는 俗談은 바로 이 점을 단적으로 표시한 말이다.

(4) 服從性: 義理나 人情이 지나쳐, 강한 자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는 성격이 있다. 敵對國이었던 미국이 軍政을 실시하는 동안, 그들이 맥아더元帥의 통치하에 절대복종한 것이라든지, 天皇統治下에 무조건 服從해 온 것은 그들이 역사를 통하여 醸成되어온 服從性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5) 流行性: 일본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流行되는 춤·노래·服飾 등 外來風潮에 대하여 민감한 ‘流行性’을 보인다. 거의 劃一的으로 狂的이라고 할 정도로 ‘流行’이 유행하게 된다. 그들은 流行에 대하여 지극히 민감하고 또 적극성을 띠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열을 올리기도 잘하지만 冷却하기도 잘한다. 그것은 모두 일본인의 성격의 하나다. 流行으로 치면, 系譜上 다른 것이라도 일본에서는 共存하는 수가 많다. 그것은 ‘思想’面에서도 例外가 아니다. 그만큼 ‘流行性’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6) 沒我性: 報恩性이 지나쳐, 자기를 값없이 완전히 내맡기는 성격이니, 이것은 제2차 대전 중, 일본인이 천황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草芥와 같이 버린다는 면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것을 要約해 볼 때 日本人의 性格은, 좋게 말하면 ‘씩씩한 마음씨’(이끼)이요, 나쁘게 말하면 ‘輕薄한 마음씨’(게로리)라고 하겠다. 그러나 筆者의 關心은 비단 日本만이 아니라 각국인이 지니는 성격의 좋은 점의 究明에 있다고 하리라.

IV. 教育의 過程

1. 日本人形成의 方法論的 原理概念

教育哲學은 인간형성(교육현상)에 관한 본질적이며 전체적이며 통합적인 思考體系이니만큼, 응당 그 領域은 ‘教育의 過程’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 경우에 가장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은, 教育過程의 原理的 概念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일본인 형성의 방법론적 원리 개념은 무엇이겠는가? 筆者는 그것을 ‘시쓰께’(躰)라고 파악하였다. (拙著, 1977, 267~275)

‘시쓰께’에 해당되는 漢字는 ‘躰’인데 이것은 ‘身’과 ‘美’를 합쳐서 이루어진 漢字式造語로서 ‘몸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니 ‘시쓰께’는 ‘檢身’이요 ‘禮儀作法’을 뜻하는 글자임을 알게 한다. 사실 日本에서 ‘시쓰께’라는 말에 ‘몸을 아름답게 한다’는 躰라는 日本國字가 쓰이게 된 것은 室町時代(1392~1573) 이래의 것으로서 武家社會에서 시작되었으리라

고 보고 있다. (柳田國男, 1970) 柳田國男에 의하면, 이 日製漢字가 사용케 되는 경우에는, 武家社會에 있어서의 教育을 의미한다거나, 近代의 學校教育에서 볼 수 있듯이, 教育課程을 짜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順序에 따라 指導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골뜨기니까 시쓰께가 모자란다’는 表現이 사용될 때, 시쓰께는 이와 같은 指導教育을 의미하는 ‘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시쓰께’라는 말은,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行動樣式이나 生活慣習의 類型을 습득케 하는 것, 말하자면 ‘禮法’(行儀作法)을 體得케 하는 데 사용”(原ひろ子・我妻洋, 2)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시쓰께’는 이렇듯 日本人 일반 남녀의 구별없이 어려서부터 요구되어 온 教育方法의 概念이거니와 역시 女性에게 좀더 엄격하게 요구된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女性의 시쓰께法》(濱尾實, 1972)이라는 책도 나와 있듯이, 유독 강조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2. ‘教育의 過程’ 論議

그러면, 日本教育의 實踐上에 있어서의 方法論的 課題는 무엇이겠는가?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受験競争(《思想의 科學》, 126호, 2~4)과 非行化(瓜生武, 松元泰儀, 村瀬嘉子, 屋久孝夫, 渡邊進, 1980)가 그것이다. 이것은 둘이면서도 본질 연관성이 농후한 教育적 과제라고 본다. 이것을 立證하는 論文도 눈에 띈다. 野呂重雄은 「受験管理教育과 非行」이라는 글에서,

非行이 생기게 되는 원인에는 管理主義와 學歷社會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學歷社會라는 것이 假借없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집 너석같은 경우, 고교생입니다마는, 進路指導 애기가 생겨 학교에 갔더니 말이에요, 進路指導의 선생님인즉 東京大學校를 이제는 一流校라는 말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超一流라는 것입니다. 수퍼 디락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은 옆으로 제껴 두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다음으로 一流校가 있고, 二流校, 三流校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험 볼 수 있는 레벨은, 超一流校를 제외한 이것 이것이다. 하는 식의 느낌이 드는 말들을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들은 이것에 대해서 심한 劣等感을 갖게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생해서 들어 간 것이니 만큼 굉장한 優越感을 갖고 있다. 교사들이 이런 말들을 분명히 말하는데까지 이르른 것이에요. 超一流校니 하는 식으로 말이지(上掲誌, 4)

하듯 教育의 現場을 실감있게 말하고 있거니와, ‘五無主義’(上掲誌, 5~6)가 無氣力・無感動・無關心・無責任・無作法(버릇없음의 뜻)을 의미한다는 것 역시 筆者에게는 낯 선 日常用語였었다. ‘亂塾時代’라는 用語 역시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내용의 설명 없이 ‘五無主義’가 日常會話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無氣力の 心理學》(波多野諄余夫, 稻垣佳世子, 1981)이라는 제목의 책이 刊行되고 있는 理由도 짐차 알만하게 되었다.

또한, 非行問題로서의 ‘校內暴力’은 너무도 엄청나게 많은 事例가 매스콤에 의해서 報道되고 있으니 만큼 「教育의 荒廢」가 NHK의 討論主題(1981. 3. 10. 19:30~21:00)로 다루어진 까닭도 어느 정도 알것만 같아. 그러니만큼 日刊新聞의 連載企劃物(《讀賣新聞》, 1980. 9. 16 ① 이래 13회분 連載)로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屋久孝夫 등에 의한 《學校內暴力・家庭內暴力》(1981)도, 현재 각방면으로 부터 가장 긴급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한 것이다. 한편, 人氣탈렌트라든가의 외국인 神父가 쓴 家庭教育論(加藤雄三, 1981/그스타트 휘스, 1980)도 눈에 띈다. 역시 非行化問題 解決方法에 答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 데서 온 所致일런지도 모르겠다.

3. ‘시쓰께’와 ‘마나비’의 構造

그래서 그런지 最近 ‘시쓰께’가 새삼 크게 注目되고 자주 다루어지게 된 것 같다. 한 예로서, 「(뉴스 스크랜블)엔지 流行 ‘시쓰께教室」(《讀賣新聞》1980. 1. 15. 夕刊), 「日曜의 廣場: 시쓰께를 생각한다」(上掲紙, 1980. 11. 9. 朝刊)「시쓰께는 地域社會 전체로써」(上掲紙, 1980. 11. 25. 朝刊) 등을 들 수 있다.

濱尾實은 그의 저서 《女性の 시쓰께法》序文에서 말하기를,

일반적인 學校教育의 方針이 남자는 여자답게, 여자는 남자답게 키운다는 中性的인 人間育成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가정에서 행하여지는 어린이들의 시쓰께까지도, 남자・여자의 性別을 무시한 엉겨주춤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男女는 확실히 同權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同質인 것은 아닙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그 特性에 따라서 여자답게 키운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人間的인 시쓰께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簇’라는 말 자체에 言及하고 있다.

“나는 ‘簇’란 참 잘된 글자라고 마음 속으로부터 감복합니다. 모양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이 마음을 아름답게 키우는 일과 連結된다는 깊은 內容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簇란 몸[身]에 붙은 것이어야 한다는 뜻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濱尾實, 序文)라고 ‘簇’라는 글자 자체에 讚嘆의 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簇’(시쓰께)의 內容으로서 모두 백 가지 事項을 크게 네 가지 題目을 붙여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시쓰께’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內容을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添言할 것은 ‘시쓰께’는 ‘기따에’(鍛鍊)와 연관성을 지니며 ‘아마에’와는 對蹠的인 위치에 있는 概念이라는 사실이다.

祖父母가 키우면 아무래도 부모가 키운 경우와 비교해서 ‘시쓰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따라서 ‘기따에’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할아비 할머니 키운 애는 세 푼어치 싸다’는 속담도 역시 이것을 가리켜 한말이라고 하겠다. 즉 父母의 ‘시쓰께’는 어

린이의 ‘아마에’를 억제하는 役割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부모의 ‘시쓰께’만으로는 역시 人間으로서의 鍛鍊이 부족하기에, 成人이 되기 전에 남들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 日本人의 思考方式이다. 가족끼리로서는 아무래도 ‘기따에’(단련)가 不足하다는 것이다. 戰前의 日本社會에서 ‘아마에’(응석)의 規制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어린이組・젊은이 숙소・娘宿・시쓰께 家政婦生活・군대생활 등의 體驗이 었으며(原ひろ子, 我妻洋, 156~157) 寒稽古나 暑稽古하여 추운 겨울이라든가 더운 여름을 택해서 행하는 武術訓練도 역시 ‘기따에’였으며 ‘시쓰께’를 위한 具體적인 教育過程이었던 것이다. 戰後에는 이와같은 ‘시쓰께’와 ‘기따에’가 弱화된 것이 아니냐는 憂慮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으나, 外國人인 우리로서는, 日本人의 ‘시쓰께’가 보여주고 있는 教育方法論의 意義에 대해서 크게 注目하여야만 되리라고 본다.

한편, ‘教育의 過程’ 關係書로는 佐伯胖의 《‘마나비’(學)의 構造》(1975)를 비롯해서, 宇佐美寬의 《教授方法論批判》(1978) 및 稻垣眞美의 《어느 英才教育의 發見》(1980)을 들 수 있다. 前二者는 理論書로서, 그리고 後者는 教育實踐記錄으로서 대단히 개성적인 저서들이라고 하겠다. 특히 《‘마나비’(學)의 構造》는 그 執筆하게 된 契機가 《‘요사’(善)의 構造》의 著者이기도 한 村井實에 의한 勸獎의 말에 촉발된 것이라 함도 奇緣이라고 하리라.

V. 結 言

「現代日本教育의 哲學의 理解」라는 本稿를 맺음에 있어 筆者는 다음의 두 가지 事項을 附言코자 한다.

첫째는, 日本文化의 本質에 관해서이다.

일본 문화의 본질은 무엇이겠는가? ‘傳統과 改革’, 이것이 筆者가 感知한 바 日本文化의 本質이다. 그것을 ‘이끼’로써 象徵하였다.

傳統이라고 하면, 歌舞伎를 비롯하여 能・狂言・人形劇・茶道・華道・陶藝・織物・染色物・製菓・醸造業 등등, 그것들 모두가 적어도 2, 300년에 걸친 역사(전통)를 가지고 代를 이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리하여 각기 流儀나 流派가 있고 系譜가 있어서, 秘傳이 엄격한 修練과 더불어 傳受되고 있다. 勝義에 있어서의 傳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反面, 일본 문화의 본질은 傳統을 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이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急轉直下, 他文化를 受容하는 ‘改革’이라는 것을 斷行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増田義郎은 ‘게로리主義’(1967, 39~40)라고 命名하고 있다. 日本文化의 繁榮은 亡恩者라고 지탄받아야 할런지도 모를 정도로, 어떤 類型의 文化로부터 주저함이 없이 다른 유형의 文化에로 勇猛果敢하게 달라 붙어 그것을 受容한다는 식의 ‘改革’이 행하여 짐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日本文化의 豐饒함을 가져 오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리라. 東洋文化로부터 西洋文化의 受容에

로 轉換한 것도 그렇거니와, 서양문화의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葡萄牙나 和蘭文化를 받아 들이고 있었지만 國際情勢의 趨移와 더불어 英國이나 프랑스, 또는 獨逸文化를 과감히 수용 섭취하였으며, 戰後에는 美國으로 그 重點을 옮겨 先進文化受容의 태세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와같이 하여 일본의 경우는 그 變化(改革)의 정도가 激甚하다. 그러기에, 義理도 없고 은혜도 알 줄 모른다고 비난 받으리만큼인 급격한 變化를 斷行하고 있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오늘날에 있어서의 文化的 豐饒는 이와같이 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具體的 事例들은 自明의 것으로 치고, 結論의 으로 일본 문화의 본질은 ‘傳統과 改革’에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日本文化의 本質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自然化’에 있다고 하리라. 이 말은 좋은 의미로도 또한 나쁜 의미로도 받아 들여진다. 좋은 의미로서는 ‘自然과의 融和’라는 것인데, 나쁘게 말하면 일본인 자신도 의식하고 있듯이 ‘倭小化’ 내지 退嬰化, 극단적인 單純化·素朴化가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無理도 아닌 것이, 어떤 類型의 文化를 받아 들이는 경우에, 그것의 全體像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理解와 受容이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文化財 자체로서 따로 떼어 놓고 受容하는데 起因하는 것인데, 더우기 바다를 사이에 놓고 떨어져 있는 관계로 보다 本質의인 理解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限界性에서 생긴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日本美의 再發見》이라는 부루노 타우트의 著書(1939)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日本建築이나 日本庭園의 美를 결코 낮게 評價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自然化’라는 말은 일본문화의 本質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兩面性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리라. 그러나, 筆者의 關心은 否定的인 면보다도 肯定的인 면을 찾아 보는데 있다. 그러기에, 日本文化의 좋은 점은 自然과의 融和에 있으며, 거기에 雅趣를 發見할 수가 있다. ‘이끼’라는 일본문화의 멋을 찾아 볼 수가 있다고 하리라.

日本文化는 또, ‘雜種文化’라고 自稱하듯이 人類文化의 集合體라는 感이 짙다. 지칠 줄 모르는 資料蒐集慾은 금일에 이르러 풍부한 경제력도 뒷받침이 되어서 全世界에 걸쳐 그 정력적인 면을 發揮하고 있다. 世界的 水準의 美術品蒐集도 그 일단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일본문화는 雜種文化이며 積小成大하는 ‘가사네기文化’(重ね着文化)이며 ‘시메나와型文化’(主連繩)라고 할 수 있는 多重性文化인 것이 그 하나의 強點이라고 하겠다.

또한, ‘傳統과 改革’이라는 일본문화의 본질은 教育分野에서도 그 特性을 찾아 볼 수가 있다. 傳統과 改革이라고 하면, 玖村敏雄編인 《教育에 있어서의 傳統과 創造》(1968)가 생각나거니와, 玖村教授의 追悼記念論文集이라는 점에서 意義 깊은 것이 있다. 선배교수의 업적을 찬양하는 그와같은 著述刊行은 乙竹岩造를 비롯하여 石川謙, 梅根梧 등의 還曆記念論文集이라든가, 皇至道, 稻富榮次郎, 高坂正顯, 森昭, 勝田守一, 宮原誠一, 海後宗臣 등의 著作集刊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것들은 모두 日本教育學者들에 의한 情誼의 紐帶의 所產物이라고 할 성질의 것으로서 70, 80代의 元老教授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健在하는

것과 아울러, 20代의 젊은 대학원 학생들이 석사·박사 과정에서 오직 學問에만 정열을 불살르고 있다는 식으로 두터운 年齡層을 가지고 있다는 學問研究의 陣容은 日本近代教育文化百年史의 現實相이라고 하리라.

실로 ‘傳統과 改革’, 이것은 時空을 초월해서 영원한 人間形成의 論理인 것이며 基調라고 할 수 있으리라.

둘째는, 日本教育의 課題와 展望에 관해서이다.

筆者는 전후 일본의 부흥과 번영이 ‘교육의 힘’에 의하는 것임을 본고 첫머리에서 말해 두었다. 그런데, 日本의 매스콤에서는 ‘教育의 荒廢’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日本의 教育은 荒廢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

적어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듯이 도처에서 ‘校內暴力’이 一般化되고 있고 교사나 학부모, 일반사회인,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束手無策인 悲觀的 狀態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日本教育의 危機가 부르짖어지는 것도 결코 根據없는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경우, 日本教育危機의 具體相으로서 ‘校內暴力’을 예로 들기로 한다면, 그 根本的 原因 및 그 對策은 무엇이겠는가?

1. 教育的 權威의 不在에 起因하는 것으로 본다.

크게는 教育의 理念이라든가 教育的 信條의 缺如로 因한 結果라고 하리라. 달리 말하면,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教育的 權威가 喪失된데서 오는 것은 아닐런지.

戰前이나 戰中에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過誤가 明白해지고 있거니와, 어떻던 龜鑑이라고도 할 理想의 人間像이 제시되어 있었고 歸一해야 할 教育理念도 되풀이하여 강조함으로써, 그런나름으로 教育의 核心이 嚴存하고 있었다고 하리라.

그러던 것이 戰後의 日本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明白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는 保守와 革新勢力 사이에 不斷한 鬭爭이 되풀이 되어 30여년간에 이르고 있다. 말하면 文教省과 日本敎員組合(日敎組) 사이에 있어서의 軋轢과 鬭爭인 것이다. 그 결과, 자제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도 敎師들 상호간에 있어서도 保守와 革新, 그 어느 쪽인가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적 입장의 교사도 있으리라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학교 안에서도 적어도 敎師들의 態度는 세 가지 색으로 분류가 可能해 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學校教育에 아무 그림자도 남기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敎師들 모두가 同一한 教育的 信條로써 結束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각자의 個性을 살려가면서 교육하는 것과는 그 結果가 전혀 달라질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컨대 教育의 權威의 不在現象이라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는 過程에 있어서 정말로 위대한 것, 권위적인 것에 접하게 됨으로써 머리를 숙이게 되는, 즉 畏敬의 念을 지니게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偉大한 것의 存在야말로 대단히 意味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본

다. 그것이 지금 일본의 教育現場에는 굉장히 缺如되어 있는 것은 아닐런지.

2. 家庭의 教育的 機能의 喪失을 말할 수 있겠다.

‘시쓰께’(儀)는 일본교육의 方法을 나타내는 原理的 概念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시쓰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주 新聞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 사실은, 그간 대부분의 家庭이 최저의 경제생활로 쫓기어, 그리고 그후에는 어느 정도 經濟적으로 運轉하게 된 결과로서, 이번에는 더욱 더 여유있는 生活을 追求하게 되어, 그것이 가정생활을 희생시켜 가면서 아버지 또는 부모(부부)가 서로 서로 많은 시간을 職場에 바치게 되고, 결국 家庭教育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을까? ‘열쇠 어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어린이들로서는 따뜻한 家庭生活를 맛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현대 일본의 가정의 斷面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 같이만 여겨진다.

3. 熾烈한 受驗戰爭의 惡循環을 들 수 있겠다.

‘직함’이라든가 學歷을 중히 여기는 사고 방식은 자연히 名門校, 명문대학, 一流大學志向이라는 社會風潮를 낳고, 그것이 치열한 수험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豫備校가 번창하고 있고 ‘亂塾時代’라는 말 역시 그 一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學力偏差, ‘와기리’(輪切), ‘아시기리’(刃切) 등의 말 역시 學力으로써 인간을 評價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어니와, 그것이 人生을 좌우하는 것이니만큼 受驗準備는 인간 形成과는 관계없이 더욱 더 그 치열함을 더 하고 있다는 것이 實情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여름, 教育革命을 단행했을 때, 그들이 羨望의 눈초리로 이 사실을 지켜 보는 양 느껴진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면 일본의 教育問題에 대한 解決策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여태까지 채택해 온 教育測定 및 教育評價의 방식에 대해서 마땅히 一大反省이 있어야 되리라는 것이다. 「○×式症候群暴發」을 걱정하는 記事도 눈에 띄거니와, 퀴즈식의 單편적 지식만이 아니라, 보다 깊이 本質적으로 사물을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自己形成을 하겠끔 하는 일이 요망될 줄로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歷史的 自我覺醒의 教育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있듯이,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각자가 ‘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어릴 때부터 自問自答하도록 교육해야 되리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각자가 自己의 生涯에 대해서 具體的이며 심각하게 그리고 本質적으로 꾸준히 追求해 가고 深化시켜 가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個性이라든가 特質에 눈 뜨게 되고, 또한 그 特性을 살릴 수 있는 人生設計圖도 그리겠끔 유도하는 것이 소중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각자가 자기 年令따라 享受하는 教育的 機會(국민학교로부터 대학 및 대학원 그 밖의 형식에 의한 교육적 기회까지 포함시켜서)가 자기 자신의

生涯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意味를 지니는가가 분명하게 파악될 것으로서, 그러니만큼 그때마다 자기에게 부여된 교육적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도 될 것이며, 또한 그와같은 教育的 機會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살려보려고 하는 自己努力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人間形成의 論理’에 대한 바른 理解(敎養)가 요망된다.

피교육자인 청소년들 자신이, 다른 지식 못지 않게, 아니 다른 지식보다도 앞서서 우선 몸에 지녀야 될 것은 ‘人間形成의 論理’라고 하리라. 단적으로 말해서, 이제부터의 학생은, 말하자면 널리 모든 피교육자는 教育學에 대한 敎養을 몸에 지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는 教育學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에게만 소용이 되는 學問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실은 教育學은 교육자만이 알고 있어서는 教育的 效果는 적다. 학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成人들이 敎養으로서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父母學》(金蕙卿, 1970)이라는 전지에서), 또 하나는 그들보다도 더 한층 젊은 年令層인 청소년들이 그 靑少年期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一員으로서 각자가 自己形成의 意味와 理念 및 方法을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럴때 비로소 교사에 의한 教育的 意圖도 여태까지와 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能動的이며 적극적인 입장에서 理解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自己形成에 있어서 교육적 의미와 效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筆者는 教育學을 받아 드리는 對象範圍의 擴大, 즉 피교육자는 마땅히 교육을 받게 되는 당초부터 피교육자의 입장에 있다고는 하나 教育學에 대한 敎養을 몸에 지니도록 요망하고, 크게 勸獎해야 되리라고 본다.

끝으로, 또 하나는 ‘教育古典의 勸獎’에 관해서이다.

日本은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出版國의 하나이며 讀書熱이 대단히 높다는 것으로도 定評이 있다. 그런데도 ‘教育古典의 勸獎’이라는 한 項目을 첨가한 까닭은, 日本의 教育學界에 한정시켜 보아도 여태까지 刊行된 교육학 관계 서적은 歐美偏重이 현저하며, 당연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東洋의 教育古典輕視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말할나위도 없이, 東西文化・思想의 特質을 圖式的으로 固定觀念化시키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일이거나, 그렇더라도 東洋思想이 自古로 倫理的・歷史的 眼目的 培養上 대단히 有效하였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東西教育古典에 대한 교육자들의 專門敎養上에 있어서의 均衡의 喪失現象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들로부터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 ‘義’보다도 ‘利’에로 달리는 傾向이 생기게 할런지도 모른다. 아시아人は 日本人의 ‘信義性’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注視하고 있다. 일본인을 가리켜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하는 그 말의 眞義는 별개로 치더라도, 예리하며 투철한 歷史的 眼目과 ‘義理’의 정신이 東洋古典을 통해서 크게 배양된다는 사실을 看過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생각컨대 文化現象으로서 교육적 자양분의

섭취에 있어서 그와같은 아시아의 精神要素의 大量缺損으로 인한 偏食傾向은 제빨리 是正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現代日本の 教育學研究에 있어서의 아시아 地域研究에 관한 地位의 劣勢에 관해서도 크게 反省의 餘地가 있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中村元(1976), 《東方の英知——わが師・わが友》, 東京, 玉川大學出版部.
2. 中村元(1980), 《思想をどうとらえるか——比較思想の道標》, 東京, 東京書籍.
3. 佐伯彰一(1980), 《外から見た近代日本》,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4. 平川祐弘(1976), 《夏目漱石：非西洋の苦闘》, 東京, 新潮社.
5. 日本リクルートセンター出版部編(1980), 《講義のあとで——碩學30人が語る學問の世界》, 東京, 日本リクルートセンター出版部.
6. プレジンスキー著, 大拙人一譯(1972), 《ひよわな花・日本》, 東京, サイマル出版會.
7. 勝部眞長(1979), 《和辻倫理學ノート》, 東京, 東京書籍.
8. 増田四郎編(1970), 《西洋と日本——比較文明史的考察》, 東京, 中央公論社.
9. 村井實(1968), 《人間の權利》, 東京, 講談社.
10. 베ネ딕트著, 長谷川松治譯(1967, 1980: 52刷), 《定譯・菊と刀(全)》, 東京, 社會思想社.
11. 中村雄二郎(1977, 1980: 7刷), 《哲學の現在》, 東京, 岩波書店.
12. 花崎泉平(1981), 《生きる場の哲學》, 東京, 岩波書店.
13. 飯田經夫(1980), 《「豊かさ」とは何か》, 東京, 講談社.
14. 森嶋通夫(1977, 1980: 12刷), 《イギリスと日本》, 東京, 岩波書店.
15. 森嶋通夫(1978, 1979: 4刷), 《續イギリスと日本》, 東京, 岩波書店.
16. 網野善彦(1980), 《日本中世の民衆像》, 東京, 岩波書店.
17. 大島建彦・外編(1979, 1980: 3刷), 《日本を知る事典 1》, 東京, 社會思想社.
18. 大島建彦・外編(1979), 《日本を知る小事典 2》, 東京, 社會思想社.
19. 三木清(1977), 《語られざる哲學》, 東京, 講談社.
20. 三木清(1980), 《パスカルにおける人間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21. 大野晋(1979), 《日本語について》, 東京, 角川書店.
22. 兒玉定子(1980), 《日本の食事様式》, 東京, 中央公論社.
23. 米山俊直(1979), 《天神祭》, 東京, 中央公論社.
24. 松平誠(1980), 《祭の社會學》, 東京, 講談社.
25. 加太こうじ(1980), 《東京の原像》, 東京, 講談社.

26. 杉田弘子(1981),《ファミリーズ——歐米の家庭・日本の家庭》,東京,ティビーエス・ブリニカ.
27. 粕谷一希(1981),《戦後思潮》,東京,日本経済新聞社.
28. 海老坂武(1981),《戦後思想の模索——森有正,加藤周一を読む》,東京,みすず書房.
29. 上山春平(1971),《日本の思想》,東京,サイマル出版会.
30. イザヤ・ベンダサン,山本七平譯(1975,1979:4刷),《日本教について》,東京,文藝春秋社.
31. 日高六郎(1980),《戦後思想を考える》,東京,岩波書店.
32. 板坂元(1971,1979:19刷),《日本人の論理構造》,東京,講談社.
33. 東大十八史會編(1968,1980:10版),《學徒出陣の記録》,東京,中央公論社.
34. 會田雄次(1962,1980:56版),《アーロン收容所》,東京,中央公論社.
35. 中村雄次郎(1967,1979:17版),《哲學入門》,東京,中央公論社.
36. 森元治郎(1980),《ある終戦工作》,東京,中央公論社.
37. 梅原猛(1974,1978:6刷),《哲學する心》,東京,講談社.
38. 多田道太郎(1978,1980:5版),《しぐさの日本文化》,東京,角川書店.
39. 會田雄次(1972,1980:新裝版 第10刷),《日本人の忘れもの》,京都,PHP研究所.
40. 會田雄次(1977,1980:31刷),《表の論理・裏の論理——日本人的英知の再評價》,京都,PHP研究所.
41. 會田雄次(1980),《逆説の論理——新時代に生きる日本の英知》,京都,PHP研究所.
42. 竹内良知(1970,1977:3刷),《西田幾多郎》,東京,東京大學出版會.
43. 碓田のぼる・他(1980),《日本の思想》(上),東京,新日本出版社.
44. 荒木繁・他(1980),《日本の思想》(下),東京,新日本出版社.
45. 山口昌男編著(1980),《二十世紀の知的冒険》,東京,岩波書店.
46. 平川祐弘(1981),《小泉八雲——西洋脱出の夢》,東京,新潮社.
47. 平川祐弘(1981),《東の橘・西のオレンジ》,東京,文藝春秋社.
48. 國立教育研究所編(1979),《明日への教育——來日研究者の講演集》,東京,第一法規.
50. 奥田眞丈,河野重男,川野邊敏,天野正治編著(1978,1979:3刷),《現代教育目標事典》,東京,ぎょうせい.
51. 平塚益徳監修,新井郁男,川野邊敏,手塚武彦,森隆夫編(1980),《増補改訂・世界教育事典》,東京,ぎょうせい.
52. 長浜功(1979),《教育の戦争責任——教育學者の思想と行動》,東京,産學社.
53. 村井實(1978),《「善さ」の構造》,東京,講談社.
54. 安田武,多田道太郎(1979),《「いき」の構造》,東京,朝日新聞社.

55. 土居健郎(1971, 1980:124刷),《「甘え」の構造》,東京,弘文堂.
56. 土居健郎(1980),《「甘え」の構造》(刊行 10周年記念愛蔵版),東京,弘文堂.
57. 大塚久雄,川島武宜,土居健郎(1976, 1980:7刷),《「甘え」と社會科學》,東京,弘文堂.
58. 大田堯編著(1978, 1980:3刷),《戰後日本教育史》,東京,岩波書店.
59. 吉田昇,長尾十三二,柴田義松編著(1979),《日本教育史》,東京,有斐閣.
60. 八木淳(1978),《文部大臣列傳》,東京,學陽書房.
61. 堀尾輝久(1971, 1979:10刷),《現代教育の思想と構造》,東京,岩波書店.
62. 梅根悟監修,世界教育史研究會編(1976, 1977:2刷),《日本教育史 Ⅲ》,東京,講談社.
63. 市村眞一編(1981),《日本の教育・理想と苦惱》,東京,創文社.
64. 下程勇吉(1974),《教育の宗教的基礎》,東京,理想社.
65. 鈴木正幸編著(1980),《現代教育の原理と展開》,東京,川島書店.
66. 朝日新聞社編(1975),《教育を考えるためにこの48冊》,東京,朝日新聞社.
67. 吉田昇,長尾十三二,柴田義松編(1980),《教育原理》,東京,有斐閣.
68. 上田薰編(1981),《教育とはなにか》,東京,講談社.
69. 堀内守(1978),《文明の岐路に立つ教育》,名古屋,黎明書房.
70. 奈良本辰也譯編(1973, 1980:12版),《葉隱》,東京,角川書店.
71. 村井實(1976, 1980:5刷),《教育學入門》(上),東京,講談社.
72. 村井實(1976, 1980:4刷),《教育學入門》(下),東京,講談社.
73. 村井實(全譯解說)(1979),《アメリカ教育使節團報告書》,東京,講談社.
74. 高橋俊乘(1978),《日本教育文化史》(1,2,3),東京,講談社.
75. 海後宗臣(1978),《日本教育小史》,東京,講談社.
76. 堀尾輝久編(1978),《教育の理念と目的》(教育基本法文獻選集 2),東京,學陽書房.
77. 筑紫哲也編著(1981),《世界の日本人觀・日本學總解說》,東京,自由國民社.
78. 佐橋滋編(1980),《日本人論の檢證——現代日本社會研究》,東京,誠文堂新光社.
79. 村井實,堀内守(1979),《對談・人間觀と教育觀》,東京,東洋館出版社.
80. 山崎正和(代表)(1981),《「顔のない巨人」の顔——日本の主張 '80》,東京,文藝春秋社.
81. 南博編(1980),《日本人の人間關係事典》,東京,講談社.
82. 皇紀夫,松井春滿,和田修二(1981),《人間と教育》,京都,ミネルヴァ書房.
83. 森昭(1977, 1978:3刷),《人間形成原論・遺稿》(森昭著作集第六卷),名古屋,黎明書房.
84. 平野智美,菅野和俊編著(1979, 1980:2刷),《人間形成の思想》(教育學講座 2),東京,學習研究社.
85. 小原國芳(1974, 1978:7刷),《師道》,東京,玉川大學出版部.
86. 堀内守(1971, 1980:12刷),《教育者——新しい人間像の發見》,東京,日本放送出版協會.

87. 国立教育研究所内日本比較教育學會「教師教育」共同研究委員會(1980),《教師教育の現状と改革——諸外國と日本》,東京,第一法規.
88. イザヤ・ベンダサン,山本七平譯(1978),《にっぽんの商人》,東京,文藝春秋社.
89. 南博(1980),《日本人論の系譜》,東京,講談社.
90. G. クラーク,(聞き手)竹村健一(1979,1980:3刷),《ユニークな日本人》,東京,講談社.
91. 會田雄次(1972,1980:20刷),《日本人の意識構造》,東京,講談社.
92. 南和男(1980),《江戸っ子の世界》,東京,講談社.
93. 多田道太郎(1980),《遊びと日本人》,東京,角川書店.
94. 梅棹忠夫(1980),《地球時代の日本人》,東京,中央公論社.
95. 宮城音彌(1977),《日本人の性格——縣民性と歴史の人物》,東京,東京書籍.
96. 陳舜臣(1971,1978:愛蔵版,1979:2刷),《日本人と中國人——“同文同種”と思いこむ危険》,東京,祥傳社.
97. 篠田雄次郎(1977,1979:23刷),《日本人とドイツ人》,東京,光文社.
98. イザヤ・ベンダサン(1971,1980:57版),《日本人とユダヤ人》,東京,角川書店.
99. 尾崎茂雄(1980),《アメリカ人と日本人》,東京,講談社.
100. ピーター・ミルワード,別宮貞徳譯(1978,1980:4刷),《イギリス人と日本人》,東京,講談社.
101. ジョン・トーマス(1981),《ヤンキー,さむらい, Gentleman》,東京, CBS・ソニー出版.
102. 國際教育振興會編(1979),《Oh,日本人!!》,東京,ジャテック出版.
103. 佐伯胖(1975,1979:7版),《「學び」の構造》,東京,東洋館出版社.
104. 稻垣眞美(1980),《ある英才教育の發見》,東京,講談社.
105. 宇佐美寛(1978),《教授方法論批判》,東京,明治圖書.
106. 瓜生武,松元泰儀,村瀬嘉代子,屋久孝夫,渡邊進(1980),《學校内暴力・家庭力暴力》,東京,有斐閣.
107. 村井實(1981),《道德教育の論理》,東京,東洋館出版社.
108. 扇谷尙,元木健,水越敏行編(1951),《現代教育課程論》,東京,有斐閣.
109. 藤原英夫編(1979),《社會教育論》,京都,ミネルヴァ書房.
110. 鈴木秀一(1978),《教育方法の思想と歴史——經驗主義理論の批判を中心に》,東京,青木書店.
111. 波多野誼余夫,稻垣佳世子(1981),《無氣力の心理學》,東京,中央公論社.
112. 加山雄三(1981),《この愛いつまでも——若大將の子育て實戰記》,東京,光文社.

113. グスタフ・フォス(1980), 《日本の父へ》, 東京, 新潮社.
114. 黒田亮(1980), 《勘の研究》, 東京, 講談社.
115. 中山正和(1968, 1980: 24版), 《カンの構造》, 東京, 中央公論社.
116. 天野郁夫(1980), 《變革期の大學像——日本の高等教育の未來》, 東京, 日本リクルートセンター出版部.
117. 喜多村和之(1980), 《誰のための大學か》,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0.
118. 《思想の科學》(1981. 1月號) 第126號(主題: 受験), 東京, 思想の科學社.
119. 《理想》(1981. 1月號), 第572號, (特集: 東洋の再發見), 東京, 理想社.
120. 《現代のエスプリ》(1981. 1月號), 第162號, (特集: 中國人と日本人), 東京, 至文堂.
121. 宇野精一監修(1980), 《東アジアの思想と文化》(東京韓國研究院創立十周年記念論集), 東京, 東京韓國研究院.
122. 増井經夫(1980), 《中國的自由人の系譜》, 東京, 朝日新聞社.
123. 岩村忍(1976, 1979: 4刷), 《東洋史のおもしろさ》, 東京, 新潮社.
124. 金谷治(1980), 《孔子》, 東京, 講談社.
125. 貝塚茂樹(1973, 1980: 4版), 《中國の傳統と現代》, 東京, 中央公論社.
126. 宇野哲人(1980), 《中國思想》, 東京, 講談社.
127. 桑原隲藏(1977), 《中國の孝道》, 東京, 講談社.
128. 村上哲見(1980), 《科學の話》, 東京, 講談社.
129. 金谷治(1972, 1980: 7版), 《易の話》, 東京, 講談社.
130. 加藤祐三(1980), 《現代中國を見る眼》, 東京, 講談社.
131. 山本市朗(1980), 《北京三十五年》(上・下), 東京, 岩波書店.
132. 西條正(1980), 《二つの祖國をもつ私》, 東京, 中央公論社.
133. 吉村怜・吉村ちさ子(1980), 《中國美術の旅》, 東京, 美術出版社.
134. 韓基彥(1977), 《韓國教育哲學의 構造》, 서울, 乙酉文化社.
135. 韓基彥(1978), 《東洋思想과 教育》, 서울, 法文社.

(* 여기에 記載하지 않은 것으로 上掲書 '135' pp. 457~461 參考文獻 1~146이 있음.)